

요시오카 이즈모의 무덤

긴잔(은광)강보다 훨씬 높은 곳, 숲이 우거진 언덕 중턱에는 17세기 초반 일본에서 금과 은의 채굴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의 묘 하나가 외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즈미국(현재의 오사카부 남부)에서 태어난 요시오카 하야토는 모리 씨족이 1562년부터 지배했던 이와미 은광의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1603년부터 1667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의 창시자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는 1600년에 이와미 은광의 지배권을 획득한 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가신 중 하나였던 오쿠보 나가야스(1545~1613)를 은광의 감시자로 임명했습니다. 훌륭한 경영자였던 오쿠보는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라면서 경영 기술과 은 광맥을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요시오카를 채용했습니다.

오쿠보는 요시오카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이즈(현재의 시즈오카현 동부)의 은 광산과 사도섬(니가타현)의 아이카와 광산 등 막부가 관리하던 여러 광산에 그를 파견했습니다. 각지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요시오카는 부와 명성을 손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즈모라는 명예로운 이름도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즈모라는 이름은 이와미 은광 동쪽에 위치한 나라의 국명(현재의 시마네현 동부)에서 따온 것입니다. 1614년에 사망한 요시모토 이즈모는 그 지역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찰 중 하나였던 고쿠라쿠지 절에 묻혔습니다. 고쿠라쿠지 절은 한참 오래 전에 사라졌지만, 1813년 그의 후손들에 의해 다시 세워진 요시오카 이즈모의 묘석은 옛 사찰의 묘지가 있었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